

월남 시인 阮鷹(Nguyen Trai)가 아시아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조 동 일*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阮鷹는 어떤 인물인가?
- III. 문학사적 위치 평가
- IV. 작품세계 비교
- V. 논의의 확대

I. 문제 제기

중국, 한국, 월남, 일본은 한문학을 공동문어문학으로 삼고, 한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민족어문학을 육성한 점이 서로 같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문학의 비중이 크고 민족어문학의 성장은 더디었으나, 일본에서는 한문학은 빈약한 반면에 민족어문학이 일찍 이루어졌다. 한국과 월남은 한문학과 민족어문학이 거의 대등하게 발전하면서 서로 활발한 교섭을 한 점이 일치한다. 한문학으로 민족의식의 각성을 적극 나타내고, 민족어문학에서 한문학의 영향을 활발하게 수용한 것은 한국과 월남에서만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문학사와 월남문학사의 동질성 연구는 상호조명을 위해 긴요하고, 동아시아문학사 서술의 기초작업으로서 소중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한국과 월남 사이에는 문화교류가 거의 없으며, 문학사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마저 결핍되어 있다.

필자는 그런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 1990년 2월에 파리에서 월남인 학자들과

*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만나 “한·월문학 비교연구의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제3세계문학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91)에서 월남문학을 특히 중요시해서 다루었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지식산업사, 1991)에서 두 나라 문학사 비교의 실제 작업을 여러가지로 시도했다. 월남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필자가 해설하고 지준모가 번역한 『베트남 최고 시인 阮膺』(지식산업사, 1992년 4월말 출간)를 마련했다. 최근에 탈고한 『동아시아문학사 비교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년 1월 출간 예정)에서 중국·한국·일본·월남문학사의 서술과 전개를 비교해 논하고 동아시아문학사 서술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한국문학사와 월남문학사의 동질성을 소중한 논거로 삼았다.

여기서는 이미 한 작업의 일부를 간추리고 새로운 의견을 덧붙여, 월남 시인 阮膺가 아시아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한문학권의 문학사와 동남아 및 인도 산스크리트문학권의 문학사를 합쳐서 아시아문학사라 하겠다. 월남은 한문학권의 일원이면서 동남아에 자리잡고 있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구실을 한다. 그 점이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阮膺은 어떤 인물인가?

阮膺(Nguyen Trai, 1380~1442)는 월남에서 크게 자랑하는 위대한 애국시인이다. 1980년에 하노이에서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앞세웠다.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문인이고,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재능있는 외교관이고, 國音詩의 창시자이며 대단한 작가이다. 조국과 인류를 위해 생애를 바친 전세계 천재들의 명단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阮膺은 중국 명의 지배에서 월남을 해방시켜 黎朝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높이 숭앙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한시문을 통해서 월남의 자주성을 널리 선포하고, 또한 字喃을 이용한 국음시 확립의 공적이 있어 높이 평가된다. 1427년에 명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승리의 쾌거를 자랑한 ‘平吳大誥’가 널리 알려진 명문이다. 문집에 남아 있는 한시가 105편(賦 1편 포함)이고, 국음시는 그보다 더 많아 254편이나 된다. 월남문학사에서 크게 평가되는 문인을 더 든다면, 16세기의 阮乘謙(Nguyen Binh khiem), 18세기의 黎貴惇(Le Qui Don), 19세기

초의 阮攸(Nguyen Du)가 있다. 그러나 阮膺가 가장 우뚝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Ⅲ. 문화사적 위치 평가

阮膺가 아시아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 중세전기문학의 성립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학사의 중세는 한문학 또는 산스크리트문학이 공동문어문학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선택한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중세 공동문어문학의 기본 성격은 서로 상통했다. 공동문어문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세계종교는 양쪽에서 모두 대승불교로 정했으므로, 중세 보편주의의 논거가 서로 일치했다. 문학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론을 필자가 『한국문학통사』(전 5권, 제 2판 지식산업사, 1989)에서 마련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문학사, 아시아문학사, 세계문학사에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

월남이 10세기까지 중국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한문을 받아들인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문이 아니면 산스크리트를 가져와야 중세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문세계의 월남이 산스크리트 세계의 일원인 참파(Champa, 占婆)와 오래 다룬 것은 문명 발전의 정도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전기인 李朝 동안에는 중세보편주의를 중국과 대등하게 구현하고자 했을 따름이었고, 그래서 이룩한 성과가 중국에 미칠 수 없었다. 고려 전기까지의 한국한문학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漢·唐·宋의 한문학이 누리는 위세를 다른 곳에서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중세후기가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에서는 南宋 이후에 고전적인 명문을 남기는 대가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며, 한국·월남·일본은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추구해, 중국에 비해 수준이 결코 낮지 않으면서 민족문학의 독자적인 지향을 뚜렷하게 하는 한문학을 육성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어문학을 일으켜 한문학과 서로 보완하고 경쟁하게 했다. 중국의 판도안에서도 鮮卑族 출신인 金の 문인 元好問(1190~1257)이나 契丹族 출신인 元의 문인 耶律楚材(1190~1244)가 중세후기 한문학의 다변화를 위해 기여했지만, 민족국가의 부재 탓에 민족문학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중국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 한국 고려의 李奎報(1168~1241), 월남 陳朝의 張漢超(Trung han Sieu, ?~1353)가 앞장서서 한문학으로 민족주체성을 선양하고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는 중세후기 민족문학을 뚜렷하게 이룩했

다. 일본에서도 五山の 승려 시인들이 일본 특유의 한문학을 마련했다.

중세전기문학에서 중세후기문학으로 넘어온 이유는 사회변화의 내부적인 동향과 관련시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려전기의 문벌귀족이 무신란과 더불어 밀려나고 지방중소지주 출신의 사대부가 새로운 문학담당층으로 등장하자 중세후기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밝혀졌다. 그 비슷한 역사적인 전환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을 터인데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동아시아 중세후기문학의 성립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아직 시도하기 어렵다. 그런데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면서 민족의 각성과 단합을 찾은 것이 내부적인 변화를 촉진하거나 더욱 뚜렷하게 했다는 측면은 오히려 일반화하기 쉽다. 몽고족 元에 대한 항거가 한국과 월남에서 그런 공통적인 구실을 했다.

고려의 抗元 문학 또한 이규보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하겠으나, 투쟁이 가장 고조된 양상을 노래한 시를 든다면 金丘의 ‘過鐵州’가 있다. 1231년에 적군의 포위공격을 견디며 끝까지 항거하던 장졸·관민의 처절한 최후를 9년 뒤에 노래한 시이다. 월남에서는 1288년에 元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승리를 張漢超가 ‘白藤江賦’를 지어 자랑스럽게 칭송했다. 승패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투쟁의 경험을 통해 고양된 민족의식이 중세후기문학의 특징인 중세보편주의의 독자적 구현을 뚜렷하게 하는데 커다란 구실을 한 점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중국에서 明이 들어서자, 한국 朝鮮왕조는 있을 수 있는 다름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중세보편주의의 독자적 구현을 민족문화 정리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다. 權近은 明太祖 앞에서 지은 시에서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堯天”이라 하고, 徐居正은 ‘東文選序’에서 “我東方之文 非宋元之文 亦非漢唐之文 乃我國之文也 宜與歷代之文 并行於天地之間”이라고 했다. 월남에서는 명의 침공을 싸워서 물리치고 주권을 되찾았다. 그 영광을 자랑한 ‘平吳大誥’에서 阮薦은 “惟我大越之國 實爲文獻之邦 山川之封域既殊 南北之風俗亦異 自趙丁李陳之肇造 我國與漢唐宋元 而各帝一方”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東國通鑑’을 편찬해 국사 서술을 정비하고, 월남에서는 ‘大越史記’를 ‘大越史記全書’로 개작했다. 明과의 관계 양상은 달라도, 한국과 월남에서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일부일 수 없는 독자적인 역사와 중국과 대등한 문화수준을 내세운 것이 서로 일치한다. 그것이 바로 중세보편주의의 독자적 구현이고, 중세 민족주의이다.

IV. 작품세계 비교

阮膺의 한시에 전란을 빨리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산수 사이에서 은거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다. 그 점에서 동시대 한국의 시인들도 같은 의식을 지니고, 한시의 표현방법도 서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민족어시를 짓는 데 힘쓰고, 민족어시를 한시와 대등한 예술적, 이념적 수준에 올려놓으려 한 점도 일치했다. 문자는 서로 달라, 한국에서는 訓民正音を 창제하고 월남에서는 한자로 월남어를 표기하는 字喃을 사용했다, 한국의 國文詩歌는 민요 형식을 받아들여 다듬었고, 阮膺가 창안한 월남의 國音詩는 한시 형식을 따랐다. 그러나 한시와 함께 민족어시가 또한 소중한다고 여기고, 민족어시를 이용해 문학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서로 같았다.

그런데 동시대 한국의 시인들이 한시를 더 많이 남긴 것과는 다르게 阮膺는 國音詩 짓는데 더욱 힘썼다. 國音詩에도 漢詩에서처럼 자기 내심을 솔직한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상의 깊이나 표현의 격조도 그리 다르지 않다. 國音詩가 처음부터 한시와 대등한 품격을 갖추게 했다. 월남어 민족어문학이 결코 천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서, 월남이 독립된 문명국으로서 온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또한 한문을 모르는 동족에게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國音詩가 필요했다. 누구나 國音詩를 읽을 수는 없지만, 전해 듣고 외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어시로 깊은 사상을 격조 높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阮膺의 國音詩는 李滉의 시조 '陶山十二曲'과 상통한다 하겠는데, 중국과 맞서는 민족의 역량을 입증하는 임무를 분명하게 의식해야 했던 차이점이 있다. 한문을 모르는 동족을 위해 지은 國音詩는 鄭澈의 시조 訓民歌와 비교할 만한데,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역설해야 할 말을 바로 나타낸 점이 다르다. 정철은 하층민중을 교화하기 위한 노래를 지었고, 阮膺는 토착 무장세력을 설득하는데 힘써야 했다고 생각된다. 각기 한가지씩 예를 들어 본다. 원문의 한자어는 그대로 가져오고, 붙어 번역을 통해 대강 이해한 바를 우리말로 옮긴다.

謾述 其五

山水에서 한가롭게 지내니 가난하지만,
권세 잡는 길은 험해 피할 수 없노라.

明月과 몇 잔 차에 취하고
 초당의 淸風과 잘도 어울린다.
 儒門 열어두고 客을 맞이하고,
 아이들이 과일 먹게 德의 나무를 심자.
 얻거나 잃거나 富貴는 天命인데,
 왜 그렇게 다투며 辱을 본단 말인가.

寶鏡警戒 十五

同胞 사이에는 骨肉의 유대가 있나니,
 북쪽 가지이든 남쪽 가지이든 한 줄기에서 나왔다.
 좋은 田地 차지하고 남들에게는 나쁜 것 주지 말고,
 人倫에 따라, 아랫 사람을 윗 사람이라고 여기자.
 하나라도 상하면 되돌려 놓을 수 없으니,
 헐벗은 무리에게는 입을 것을 주자.
 이 세상에서 많이 참는 것이 훌륭한 사업이니,
 剛柔 두 극단을 아우를 줄 알자.

V. 논의의 확대

중세전기문학에서 중세후기문학으로의 전환은 한문학권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문학권에서도 일제히 일어났다. 그런데 한문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구현한 것과 같은 변화는 산스크리트문학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민족어문학의 성장은 쉽사리 확인된다. 타이에서 수코타이왕조의 람캄행(Ramkhamhaeng)왕이 타이문자를 제정해 반포하면서 1292년에 세운 비문에서 애민의 취지를 밝힌 것은 訓民正音 창제와 여러모로 상통하며, 그 뒤에 타이어 시가 이루어 졌다. 자바에서 인도 전래의 소재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군주의 치적을 찬양한 '國家記'(Nagarakratagama)를 시인 프라판카(Prapanca)가 1365년에 자바어로 지은 것이 또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15세기에 말레이어로 '말레이역사'(Sejarah Melayu)를 서술한 것도 일련의 변화의 하나이다. 한문학권에서는 역사에 대한 자주적인 인식을 공동문어로 나타낸 것과 대조가 된다. 산스크리트문학의 본고장 인도에서는 카비르(Kabir, 1445~1518)가 당대 최고 이념을 힌디어 시로 표현하면서 박티(bhakti) 시

풍을 개척하자 중세후기문학으로의 전환이 선명하게 이루어졌다.

중세후기문학으로의 전환이 일제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언어 또는 각국의 문학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阮鷹은 한문학권 가장 남쪽 월남에서 중세후기로의 전환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장점이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게 입증했으므로 산스크리트를 공동문어로 삼고 있던 이웃 여러 나라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阮鷹이 이룩한 중세후기 민족문학은 월남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문명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인 능력이자 지침으로서 최상의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마땅하다. 그런 성공 사례에 이웃 여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타이인이나 말레이인은 문화적인 원천은 다르지만 중세후기문학을 이룩하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길을 찾아 월남과 함께 발전을 이룩했다. 한편, 중세전기에는 월동하게 앞서나가던 크메르인이 그때부터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월남과 참파의 오랜 쟁패가 결국 월남의 승리로 기울어진 분기점도 중세후기로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세후기문학의 성장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거쳐 근대문학으로 계승되어 오늘날의 민족문학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서양의 침략이 닥쳐와 식민지적인 근대문학을 만들어내는데 맞서서 민족적 근대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과 있게 찾을 수 있는가는 중세후기에 축적한 역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으면서도 월남은 자아상실에 빠지지 않고, 자기 전통에 근거를 둔 근대민족문학을 이룩해 민족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그 저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阮鷹 시대의 중세후기문학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중세전기문학, 중세후기문학,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근대문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속되어 왔는가 광범위하게 비교해 아시아 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아직 어디서도 착수하지 못했다. 관심이 협소하고, 연구방법이 부적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아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세계사 인식의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분발이 요망된다. 우리는 한국문학사와 월남문학사를 비교해 연구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그 과업 수행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